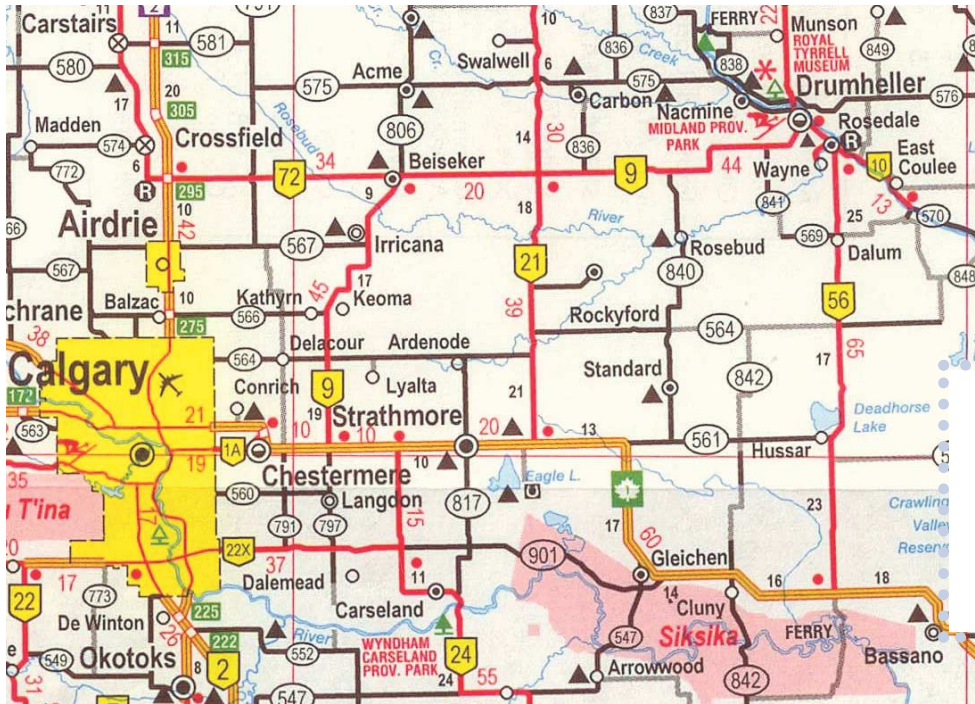


광대한 캐나다의 땅, 진노란색의 향연



박형우

이번호에서는 여행용 지도제작사로 유명한 미셸린에서 알버타의 아름다운 길로 선정한 세계의 길 중의 하나인 9번 - 56번 - 1번 하이웨이를 달려본다.

이 길은 캘거리를 출발해서 북동쪽에 위치한 드럼헬러로 이어지는 9번 하이웨이를 달리다가 드럼헬러에서 남쪽으로 곧게 뻗은 56번 하이웨이를 통해서 트랜스 캐나다 하이웨이인 1번 고속도로를 통하여 캘거리로 돌아오는 연장 340Km의 길로 약 네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길이다.



9번 하이웨이는 트랜스 캐나다 하이웨이를 타고 캘거리를 동쪽으로 벗어나 Chestermere를 지나 10Km 지

점에서 북쪽(진행방향에서 왼쪽)으로 이어지는 알버타의 주요 고속도로이다. 이 도로는 드럼헬러를 지나 Saskatchewan의 국경까지 9번을 유지하다가 7번으로 번호가 바뀌어 Saskatoon까지 이어진다.

이 여정에 놓여있는 주요 볼거리로는 7월 중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여 8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유채밭(Canola Field)을 빼놓을 수 없는데, 굽이치는 지형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진노란색의 향연



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카놀라오일(Canola Oil)이라는 명칭은 「캐나다(Canada)」와 「오일(Oil)」을 합하여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카놀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주도의 유채꽃과 외관상으로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지방산 구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카놀라오일은 1970년대에 캐나다에서 유채의 품종 개량을 통해 씨앗에서 추출해 낸 식물성 식용유이며 흔히 불리는 유채기름에는 인체에 좋지 않은 성분인 에루신 산(erucic acid)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반면, 카놀라오일이라고 불려지기 위해서는 캐나다 정부가 정한 엄격한 품질 규격을 적용하여 이에 적합한 지방성분을 갖고 있어야 한단다.



카놀라오일은 포화지방산이 7% 이하로 적고, 올리브 오일에 많은 올레산은 약 60% 정도로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건강에 좋은 오메가 3-6-9 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 몸에 좋은 오일이어서 수출도 많이 하며 매년 재배면적이 늘고있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다.

9번 하이웨이의 주변에 만개한 유채를 즐기면서 한시간 여를 달리면 도로 좌측으로 그랜드 캐년을 조금 부드럽게 깎고 축소판듯한 지형을 만나게 되는데 이 Horse shoe canyon과 드럼헬러 주변의 침식, 풍화로 만들어진 기묘묘한 형상의 지형들은 몇 번을 방문해도 신기함을 일으킨다.

공룡 박물관과 Hoodoos로 유명한 드럼헬러는 알버타에서 밴프와 재스퍼에 이어 우리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방문지이며 그 외에 곳곳에 숨은 볼거리가 많이 있다.

지형에서 검게 드러난 부분은 석탄층으로 산지에서 채광을 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채취가 쉽고 메탄가스 성분이 적어 20세기 초반에서 1970년대 말까지 드럼헬러 지역에 큰 광산 회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캐나다 내에서 현존하는 유일한 목조 Tipple (석탄을 열차에 싣는 설비)이 역사 유적지로 지정되어있다.

드럼헬러 시내에서 Hoodoos로 이어지는 남쪽길로 가다가 우측으로 만나게 되는 56번 Highway는 60여 킬로미터의 구간동안 마을이 두 군데 밖에 없는 한적한 길로 드라이브를 하는 동안 엄숙미마저 느끼게 된다. 간간이 만나는 고개 마루에서 잠시 차를 멈추고 끝간데 없이 뻗어난 길을 바라보며 상념에 젖어보는 맛도 일품이다

트랜스 캐나다 하이웨이를 만나 켈거리로 돌아오는 길은 주로 저녁시간이 되기 쉽다. 이때 서쪽으로 지는 석양을 배경으로 켈거리의 스카이 라인이 지평선 아래로부터 점차 솟아오르는 것을 보면서 바다가 아닌 곳에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이 한없이 광대한 캐나다의 땅 넓이에 감탄이 끊어지지 않는다.

